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가정을 좌우하고 삶을 좌우합니다

☞ A17면에서 계속

면서 지혜롭게 산다면 그건 스스로서 풍부해지는 거지요.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헤아릴 수 없는 몇 조가, 아니 조라고 해도 틀리고 이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 생명들이 같이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인공을 진짜로 믿는 거는 믿고 의심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자기를 자기가 의심하지 말라. 무조건 믿어라. 그리고 믿는 데는 무조건 물러서지 말라. 일체 만법이 자기 마음에서 바로 나고 든다. 자기 마음이 움죽거려야 자기 몸이 움죽거린다. 자기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분별이 있고 분별이 있기 때문에 움죽거린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로서 바로 내세울 게 없는 게, 공했으니까.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 거기에 믿고 바로 맡겨 놔라.

풍차 돌아가듯 그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자동적으로 바람만 불면 풍차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나면 벌써 이거는 자동적으로 돌아가는데 왜 걱정을 하고 내가, 내가 산다고 하고 내 거라고 하고 내가 발발발발 방황해야 하느냐 이겁니다. 자기 주인이 어엿하게 스스로서 벌써 생각만 내면 우주 법계가 전부 알게 되는데요. 개별적인 내가 아니에요. 전체 포괄적인 나예요. 포괄적인 나이기 때문에 나라고 세울 게 없는 것이 나다 이겁니다.

그걸 이름해서 부처라고 하고 자유인이라고 하고, 각을 했다고 하고, 도인이라고 하고 이렇게 말들은 많으나 그런 이름을 가지고 짓지 마라.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살려면 그까짓 이름이야, 어떤 걸로 이름을 짓든지 자기네들 환경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자기가 이름이 본래부터 없던 거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따서 지을 수도 있고 산 이름을 따서 지을 수도 있고 동네 이름을 따서 지을 수도 있고 물건을 봐서 이게 여기에 적합하다 하면 거기에 적합하게 이름을 짓고 이런 것뿐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의정을 가져라." 이런 게 있지요. 그거는 내가 참나를 알고 난 뒤에 거기서 스스로 나오는 의정이, 대(大) 의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아비와 자식이 상봉했을 때의 그 기쁨, 또는 기쁘면 기쁜 대로의 모든 것이 그렇게 돌아갈 때 아, 다시 거기에, 모르는 거는 자기 자신에게 '이 미지수의 문제를 도대체 당신이나 알지 난 모르는데 아, 이게 뭘까?' 하고 의정을 내는 거지 아니 무조건 모르면서도 의정을 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초적인 건 해 놓고 주춧돌을 튼튼히 세워 놓고 기둥을 세워야지, 주춧돌도 해 놓지도 않고 기둥을 세울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만약에 기둥이라면, 만약에 이 대들보로 쓴다면 대들보가 될 것이고 서까래로 쓴다면 서까래가 될 것이고 기둥으로 쓴다면 기둥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 하나가 수만 가지로 쓰여지는데 구태여 이름 지어서 이게 따로 있고 저게 따로 있고, 용왕 따로 있고 칠성 따로 있고 신장 따로 있고 산신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화해서 순간순간 찰나찰나 내가 바로 병이 나면은 내가, 내 주인공 자체가 바로 약사가 되는 겁니다. 박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안팎을 다 경영하는 거죠. 운행하는 겁니다. 또 내가 가난하면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고요. 내가 어떠한 법에 걸렸다면, 법의 위치에서 지금 현재 생활에서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땐 바로 내가 바로 뭐가 되는 줄 알아요? 바로 독성이 되는 거죠, 산신이 되고. 내가 명이 짧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바로 내가 칠성이 되고 지장이 되고요.

이렇게 광대무변하고 이렇게 좋은 법을 왜 좋게 쓰지 못하고선 그렇게 미신적으로 아주 졸렬하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졸렬하게 가르쳤나요? 천만에요. 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가난을 끌어들이고 생각하는 대로 바로 그 지혜를 끌어들일 수 있고 가난치 않게 살 수 있는 그 기반을 닦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가정을 좌우하고 있고 여러분의 그 삶을 좌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아주 이게 그럴까 안 그럴까 하는 것이 없이 절대적으로 그냥그냥 무심으로 믿어지는 마음이라야 됩니다, 모든 게. 이유가 거기 붙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우울해요

질문 요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너무 답답해서 마음까지 우울해집니다. 내 마음의 근본이 우주의 근본이라 하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정말 보잘것없는 내 마음으로도 대기질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답변 왜 그렇게도 쉽고 그렇게도 빠르고 그런 게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데 어째 모두 믿지 못하고 그렇게 앨 쓰고 즐겁지 못하게 살고 울고불고 야단들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무조건 믿음과 물러서지 않는 그 마음. 왜 못 믿는가. 그 생명이 그 생명이고 바로 그 몸이 그 몸이고, 그 행이 그 행이고, 그 사람이 만법을 행하고 있는데 자기를 자기가 못 믿어요.

문제는 그런 데에 있습니다. 이거는 '깨닫는다 안 깨닫는다, 못 깨달아서 못한다, 깨달아야만 한다' 이런 걸 떠나서 자기를 못 믿는 겁니다. 그것은 본래 깨닫는다는 언어도 붙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는 언어도 붙지 않는 것이다.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주어져 있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그 광대무변한 이치를 우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한 뚱그런 맷방석 같은 게 하나 있다면 왜, 애들이 화가 나면은 나가서 스트레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마치를 가지고 탁 때리면 쑤욱 올라오고 또 탁 때리면 쑤욱 올라오는 이러는 것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이 이렇게 쭉 있다면, 비유한다면 바로 이것이 쑥 올라오고 쑥 내려가고 하는 것이 어느 혹성도 될 수 있고 세계도 될 수 있고, 어느 국가도 될 수 있고 또 사회도 될 수 있고, 사회에서 살아나가는 개별적인 어떤 한 집 한 집도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선 이것이 불덩어리일 때는 불망치로 때려야 됩니다. 만약에 불덩어리를 불로 때리지 않는다면, 또 무슨 막대기로나 이런 걸로 때린다면 그게 되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때리면 들어가고 또 어떤 것이 쑥 불거져 나오면 또 때린다. 이것이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여기 때리면 저기 나오고 저기 때리면 여기 나오고 하는 것이 우리 세계적으로 살아나가는, 조그맣게 친다면 세계적이고, 아주 더 작게 친다면 국가적이고, 더 크게 친다면 우주적과 더불어 같이 돌아가는 거다. 그럴 때에 그렇게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그럴 때 혼돈이 오는 거다 이겁니다, 이게. 혼돈이 발생할 때에 우리는 조그맣게 치면 한 가정이지만, 아주 작게 치면 내 몸의 혹성이지마는 크게 치면 우주적으로도 대비할 수가 있는 거다.

그런데 진짜로 믿고 진짜로 꼬리를 붙이지 않고 무조건 내가 그렇게 믿는 반면에 아주 이게 그럴까 안 그럴까 하는 것도 없이 그냥그냥 절대적으로 그냥 무심으로 믿어지는 그 마음이라야만이 될 수 있는 거죠, 모든 게. 이유가 거기 붙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가 붙습니까.

세상도 지금, 아까도 그랬습니다. "애! 일요일이 언제냐?" 그러니까 "내일 모레예요." "아니, 참 빠르기도 하구나." 그러니까 "쉴 사이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눈이, 눈동자가요, 일로 돌아갔다 절로 돌아갔다 쉴 사이 없이 돌아갑니다." 그래요. "그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로구나. 한 번 눈동자가 돌아갈 때 우주가 돌아가듯 이렇게 빠르구나." 이래 버리고 말았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만큼 빠르게 돌아가는 그 반면에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도 빠르게 튀어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나와 가지고서 벌어져야 알지, 나오는 것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질 모르거든요.

전에 리비아를 미국에서 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비아에서 소련으로 전문을 띄워서 우리는 보복 단계를 가져야겠다는 그런 무슨 뭐를 띄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이, 이거 그러면 미국 외에는 곤란한 점이 생기겠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당시…, 요 얘기를 거기 포함시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불쑥 나오면 이걸로, 이 망치도 사람을 때릴 때는 몽둥이가 되고, 또 그런 걸 때리는 데는 불망치가 되고, 또 쇠를 쳐서, 쇠를 칠 때는 쇠망치가 되고, 또 전자력을 칠 때는 전자 망치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전부 이런 문젭니다. 이 망치도 하나로, 하나가 아닙니다. 찰나찰나 이거는 환경에 따라서 그 쓰여지는 게 다 달라요. 그러면 찰나찰나 이게 화해서 옮겨 가면서 씀씀이를 쓰고 있는 우리 생활에서도 그것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닥치는 건 이렇게 막고, 여기에서 이렇게 닥치는 거는 이렇게 막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고정되지 않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럭하면 안 되지. 그럭하면 곤란해지고 회담도 곤란해지고 오손도손 참, 조화를 이루기는 어렵고, 불쑥 튀어나오는 거는 그저 쳐서 너무 나오지 못하게끔 해야 이게 평등해질 테니까. 그저 나오면 좀 때려서 들여보내야 될 거야. 그래야 혼돈이 오지 않겠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냥, 보통 그냥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과 나와 똑같이 그런 말을 그대로 했어도 나 그대로 그냥 말한 거하고 여러분들 말한 거하고 다른 것은 단지 그것뿐입니다. 나는 이것을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이럭하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남으로써, 그 말이 나옴으로써 이게 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느 날 비가 왔습니다. "스님, 아이고 이거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비 맞으면 안 됩니다. 우산을 쓰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딱 그랬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체험을 드리기 위해서 얘깁니다. 모든 걸 믿고 생활하는 데 하나하나를 점검하면서 체험하면서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되면 자기한테 모든 일체 만법이 주어져 있다는 거를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것을 느껴 보지 않고 생각도 안 해 보고 지켜보지도 않았다면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랬습니다. "이거 봐. 모든 것이 환경에 따라서 이 공기와 바람, 또는 그 무중력의 전자력을 이렇게 중단시키면 일로 바람이 오질 않아. 이 허공에도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울타리가 쳐질 수도 있고 울타리가 안 쳐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비 맞아도 좋아. 그 비를 맞으면 외려 생기가 날 텐데." 거꾸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검증을 해 보라지, 나오는 게 있나.' 하고선, 우리의 그 빠른 거, 빛보다도 더 빠른 인간의 참마음이, 그 참마음 한 점이 우주의 그 일체 만법을 우리 삶과 더불어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자유자재할 수 있다는 그 점을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시라는 얘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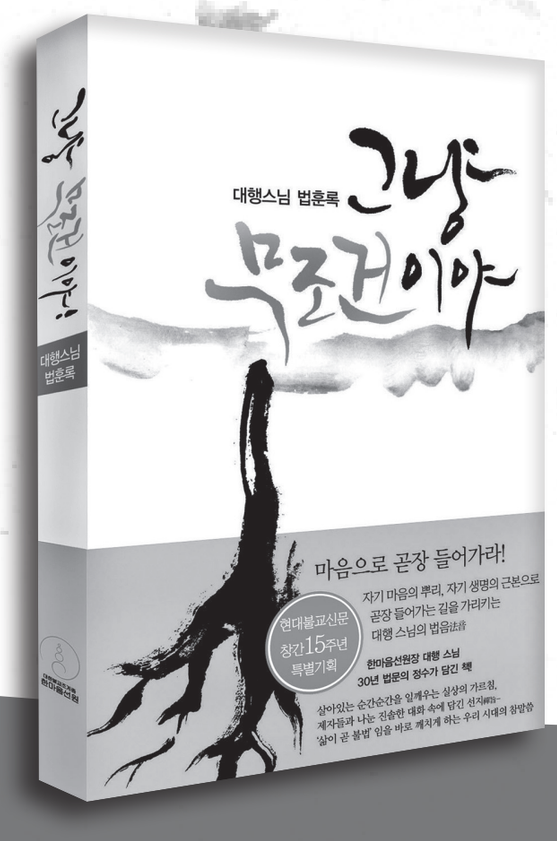
참회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질문 제가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참 나쁜 짓도 많이 했고 사람들 마음도 많이 상하게 한 것 같습니다. 마음공부를 해 보려고 하니 그런 것들이 마음에 걸려 참회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길을 일러 주십시오.

답변 본래 마음은 저 달나라에도 그냥 지금 한 찰나에 갈 수 있고, 한 찰나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전부 도는 아니지마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광대해서, 만약에 비행기 프로펠러가 돌아가듯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수레가 돌아가는 것이 쉬지 않고 돌아간다면, 거기 먼지 앉을 자리도 없을 거고, 고가 있을 법도 없을 거고, 또 죄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하나 점프해서 돌리는 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다 없다도 없습니다. 그 도리를 알면 '왔다' 예요. 정말입니다. 이 세상 살아나가기가 아주 수월하고 또 이 세상 살아나가기만 수월한 게 아니라 세세생생이고 자기가 뿌린 거 다 거둘 수 있고, 수없이, 과거에 내가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이렇게 거쳐 오면서 지은 그 인연, 인과들. 그런 것도 다 해결할 수 있고. 아주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 보세요. 그리고 절대로 이 공부하는 데 뭐, 생활이 지장이 된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생활이 즉 공부니까요. 생활도 잘해야 돼요, 모범 있게.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